



27일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의 어머니산' 무등산 정상 모습. 돌을 다듬어 포개놓은 듯한 주상절리로 이름 높은 서석대가 하얀 눈에 덮여 상서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젠 국립공원 무등산

도립공원 40년만에...21번째 지정 확정
면적 75.425km²...가사문화권 지역 제외
군부대 이전·방송통신시설 통합 시급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신규 지정은 1988년 변산반도·월출산 이후 24년 만이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시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당면 과제로 꼽히고 있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 통합 등의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7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도립공원인 무등산에 대한 국립

공원 지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원 면적은 75.425km²다. 광주호 일대와 소쇄원을 비롯한 가사문화권 지역은 제외됐다.
무등산에는 수달·구렁이 등 멸종위기종 11종과 원앙·두견새·새매·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8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모두 2383종에 이른다. 해발 1100m 이상의 고지대에는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높이가 20~30m, 폭 40~120m로 분포해 있으며 남한 최대규모로 꼽힌다. 보물



제131호인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지정문화재 17점도 보유하고 있다. 광주도심과 인접해 있어 매년 이용객만 700여만명에 이른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를 정밀 조사하고 훼손된 탐방로를 정비하는 한편 정상부 경관도 복원할 계획이다. 주상절리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생태관광 인프라와 국립공원 명품 마을 조성 등도 추진된다. 관리인력은 현재보다 2배정도 늘어나고, 관리 예산도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체 면적의 74.4%에 달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예산에 19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광주시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972억 원을 투입해 자연사박물관 1곳과 주차장 16곳, 탐방지원센터 28곳, 야영장 3곳, 오토캠핑장 2곳, 청소년수련시설 3곳, 휴게소 6곳, 자연학습장 3곳 132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무등산이 진정한 국립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의 통합 및 이전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66년부터 해발 1187m 무등산 정상에 레이더 등 군사시설과 함께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시설 5곳도 홍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등산 정상 군부대 시설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상태며 방송·통신시설을 통합하는 데도 예산만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임희진 공원복지과장은 "이번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김용준 前헌재소장

부위원장 진영...국민대통합위원장 한광옥·부위원장 김경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재법관소장을, 부위원장에 고창 출신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대통합위원장엔 전주 출신 한광옥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엔 여수 태생인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관련기사 4면>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1차 인수위 인선의 특징은 박 당선인 지지기반의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을 다수 인수위에 포진시키는 당명 인사를 통해 국민대



김용준 위원장

통합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서울 가정법원, 광주 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소아마비 지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에까지 올랐다.
진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3선 의원에 박 당선인의 당 대표 시절 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박 당선인의 총선 공약을 입법화하는데 앞장선 데 이어 이번 대선과정에서는 대선공약 개발을 담당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김경

재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대선 때 박 당선인 지지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에 합류한 인물로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새 정부의 첫 번째 화두로 던진 국민대통합의 실천을 위한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문제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도 따로 뒀다.
청년특위 위원장엔 김상민 의원이 발탁됐다. 정현호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 집행장과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박칼린 키뮤지컬 스튜디오 예술감독,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대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이종식 체널A 기자도 청년특위 위원으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평동 군사훈련장에 車 100만대 생산기지” “J프로젝트 개발 박차·양식섬 조성 본격화”

강운태 시장·박준영 지사 송년 기자회견

광주시 광산구 평동 군사훈련장 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내에 '국립아시아미술관'을 건립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전남도는 1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J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대규모 양식단지인 양식섬 조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년·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이전이 협의중인 평동 군사훈련장(포사격장·동백훈련장) 부지 가운데 90만평 정도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현재 서구에 있는

기차차 광주공장이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평동 부지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자동차 40만대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문화전당과 관련 "전당 내에 들어설 5개 주요 건물 가운데 창조원과 정보원은 기능이 애매하다"며 "이 2개 시설 가운데 한 곳을 '국립아시아미술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아시아미술관은 프랑스의 복합문화시설인 퐁피두센터를 모델로 하게 된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최근 아시아 문화개발원에서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트에 대해 밑그림을 그려왔지만 광주 시민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

었다"며 "원점에서 시민의견을 재수렴토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내년 한해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대 목표로 두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농수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 고급식단을 선도하고 급증하는 중국의 신흥 부자 등 해외를 겨냥한 수출량을 확대하겠다"며 "또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인 사파리아일랜드나 갯벌·생태공원을 개발하고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외자유치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거시기, 머시기’ 내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확정

내년 제 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거시기 머시기'라는 주제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 등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이영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서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주제를 '거시기, 머시기'(以心傳心·Anything, Something)로 확정하는 한편, 9개 전시관 운영 등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 총감독은 "‘거시기, 머시기’는

"것이기, 멋이기"로 읽힐 수 있다"면서 "모호한 듯하지만 '서로 통한다'는 정서를 자극, 더 나은 미래를 작업하는 디자이너에게 적절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성자동차(株)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C-Class
2.6% 저금리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더 넓은 세상을 보라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600여명의 취재 기자와 전세계 35개국 46개 도시에 파견한 60여명의 해외특파원망을 통해 24시간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로 우리의 소식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